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연준 선호 핵심 PCE 물가, 4개월 만에 가장 크게 상승... 지출 증가 탕
- WSJ: 최근 인플레이 추세는 연준 금리 인상 일시 중단시키다
- Bloomberg: 엘런 재무장관, “연방 예산 적자에 우려 말라”

[미국 금융]

- Bloomberg: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은 충분한 검토 필요”

[미국 생활]

- WSJ: 미 상위 중간층에 부와 자산 커진다

[미중 경제]

- WSJ: 미 무역 허점, 중국의 새 전자상거래 기업 부상을 촉진

[인공지능]

- WSJ: 아마존, 인공지능 경쟁속에서 수익성 개선
- Bloomberg: 씨티은행, 1천89페이지 자본 규정 판독에 생성형 AI 사용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Bloomberg: 엑손과 셰브론, 정유 및 화학 사업 부문에서 부진
- Bloomberg: 아마존, 클라우드 사업부 성장 동력 얻고 있다
- WSJ: GM의 크루즈, 미전역에서 자율주행 중단될 듯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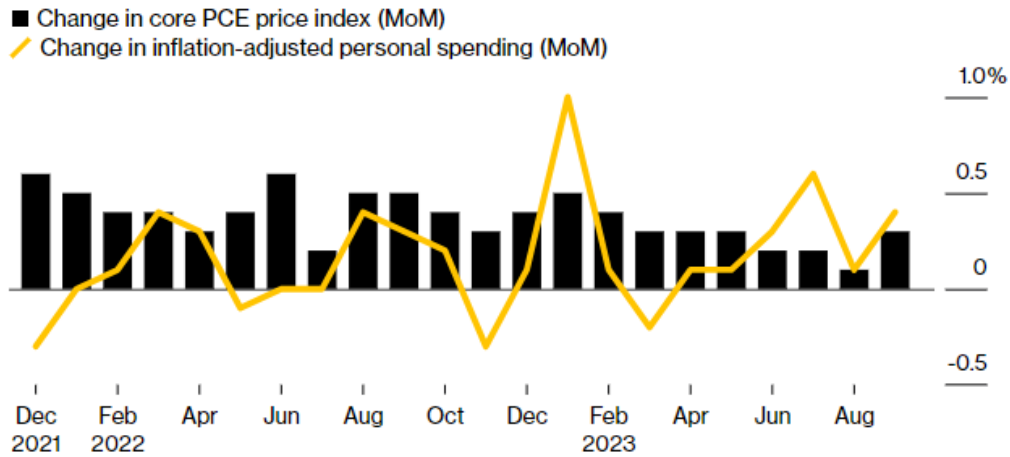
Bloomberg: US Core PCE Prices Jump Most in Four Months as Spending Picks Up

연준 선호 핵심 PCE 물가, 4개월 만에 가장 크게 상승... 지출 증가 탕

- 9월에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가 4개월만에 가속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 지출이 증가해 향후 수개월간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9월에 0.3% 증가했다고 오늘 금요일 연방경제분석보고서는 밝혔다. 인플레이 조정 소비 지출은 9월에 0.4% 올랐다.
- 올해 4분기로 향하는 상황에서 인플레이 상승과 탄력적인 가계 수요가 서로 동반해 모멘텀을 만들어 있다.

Underlying US Inflation Picks Up With Consumer Spending

Core price gauge favored by Fed increases by the most in four months



Source: Bureau of Economic Analysis

Bloomberg 기사

WSJ: Inflation Trends Keep Fed Rate Hikes on Pause

최근 인플레이 추세는 연준 금리 인상 일시 중단시키다

- 요지: 9월에 물가 상승이 가속화되었지만 연준이 다음주에 금리를 인상할 만큼 충분치는 않다.
- 오늘 금요일 발표에 따르면 9월 개인소비지출 물가는 전월에 비해 0.4% 증가했고, 근원 개인소비지출 물가는 동기간 0.3% 늘었다.
- 근원 인플레이 추세는 여전히 높지만 연준이 지난 20개월동안 금리를 40년 만에 빠르게 인상시킴에 따라 상당히 둔화되었다.
- 최근 장기적인 국채 수익률이 상승함에 따라 인플레이가 둔화되는 한 연준은 단기 금리를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 한편 연준 관리들은 12월 12일 양일간 열리는 마지막 정책 회의전에 2개월간의 인플레이 지표를 확인 할 예정이다.

WSJ 기사

Bloomberg: Yellen Sounds Unfazed Over US Budget Deficit Concerns

옐런 재무장관, “연방 예산 적자에 우려 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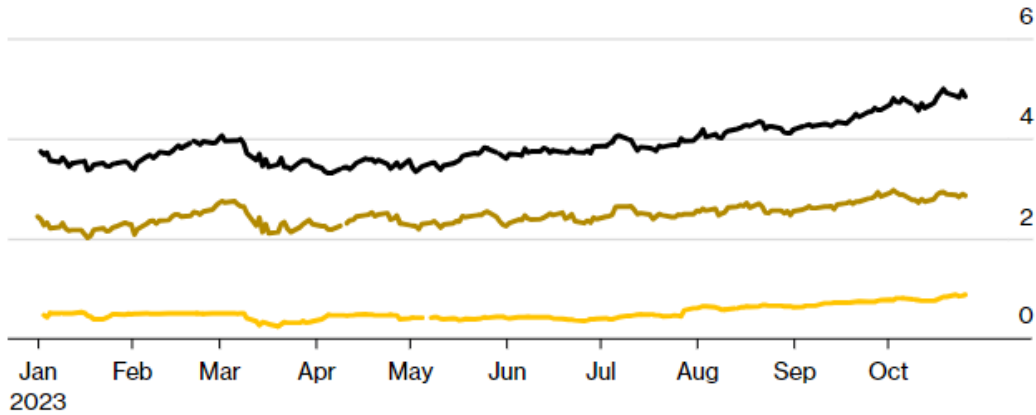
- 많은 이들이 주장하고 있다. 경제 호조에도 불구하고 현재 채권 금리가 급등하는 것은 주로 연방 부채 확대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일부 채권 시장 참여자들은 주장하기를 연방 재무부가 다음주에 장기 채권 매각을 축소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 그러나 재닛 옐런 연방재무장관은 이같은 우려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정부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선진국가들에게 글로벌하게 나타나는 채권 수익률 때문이라고 보았다.

- 시장 전반에 걸쳐 수익률이 상승했고, 미국 국채가 글로벌 벤치 마켓이기 때문에 상승할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Government Debt Yields on the Rise

Jump in long-term Treasury yields has outpaced others

US 10-year German 10-year Japan 10-year



Source: Bloomberg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Central Bank Still Weighing US Digital Dollar, Fed's Barr Says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은 충분한 검토 필요”

- 연준 고위 감독관은 관리들이 계속해서 디지털 달러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아직 중앙은행에 가상화폐 도입을 권고할 것인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 오늘 금요일 연준 부의장인 Michael Barr는 연준이 미 의회나 정부의 지지 없이는 디지털 화폐 발행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조치를 권고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 가상화폐 도입의 지지자들은 가상화폐가 금융통합을 촉진하고 전자 결제 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 말한다. 그러나 반대하는 이들은 가상화폐 도입이 미 금융 시스템에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보안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Bloomberg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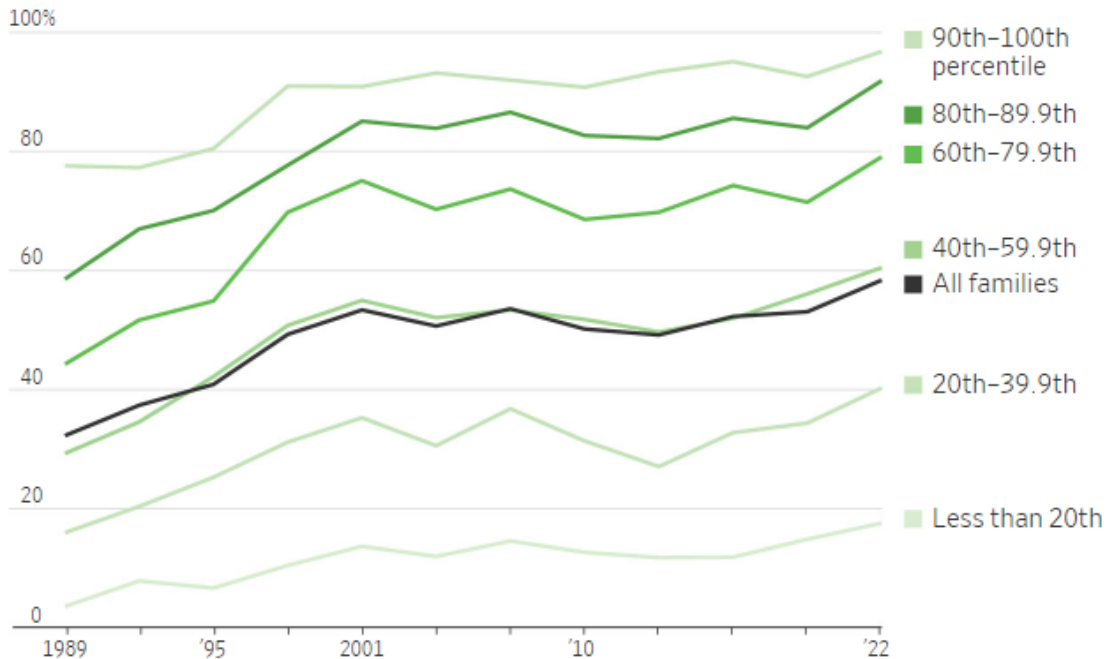
[미국생활]

WSJ: Never Mind the 1%. Mini-Millionaires Are Where Wealth Is Growing Fastest.

미 상위 중간층에 부와 자산 커진다

- 요지: 이들 중상위층은 대학 졸업장, 저축, 증시의 강세장, 타이밍 덕분에 많은 이들이 백만장자가 되었다.
- 지난주 연준은 작년 미국 가구의 평균 순자산이 2019년의 74만9천달러에서 42% 증가해 1백만불을 상회했다는 것이다.
- 특히 특이한 점은 백만장자가 많아졌다는 것. 2019년 9백80만가구 있던 것과 비교해서 총 1천6백만 가구의 재산이 1백만불이 넘는 다는 것이다. 재산이 2백만불 초과한 가구는 4백70만 가구에서 8백만 가구로 증가했다.
- 미니 백만장자들의 90% 이상은 직접적으로 또는 은퇴구좌를 통해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87%는 주택 소유 그리고 주택 구입시 저금리 혜택을 누렸다.

Share of families owning stocks,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by income percentile



Source: Federal Reserve's Survey of Consumer Finances
Erik Brynildsen/THE WALL STREET JOURN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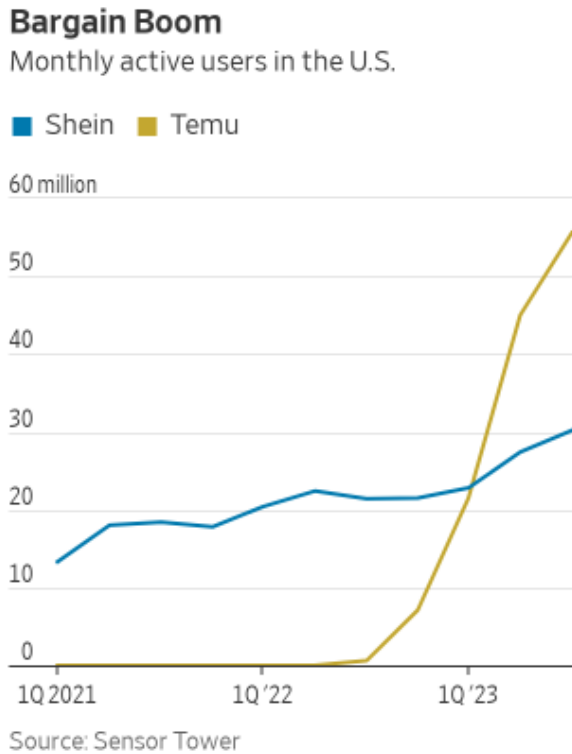
WSJ 기사

[미중 경제]

WSJ: U.S. Trade Loophole Fuels Rise of China's New E-Commerce Firms
미 무역 허점, 중국의 새 전자상거래 기업 부상을 촉진

- 값이 저렴한 소포에 대해 관세를 부여하지 않고, 세관 조사를 받지 않도록 하는 미국의 법 조항이 예를 들어 중국 기업체 Shein과 Temu가 빠르게 성장하도록 돕고 있다.
- 현재 800달러 미만의 소포는 “최소 면책 조항 (the de minimis exemption)”에 따라 간소화된 수입절차만을 거치게 된다.
- 미 의원들과 기업인들은 이런 허점을 통해 중국 기업들이 관세를 피하고 있다면서, 그 규모가 상당하다고 말한다.

- 두 기업은 미국의 관세법을 준수했으며, 최근의 기업 성장이 최소 면책조항을 통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작년에 미국으로 수입되는 저가 소포가 안전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음에도, 현재 어느 규정도 보완하지 않은 상태이다.



WSJ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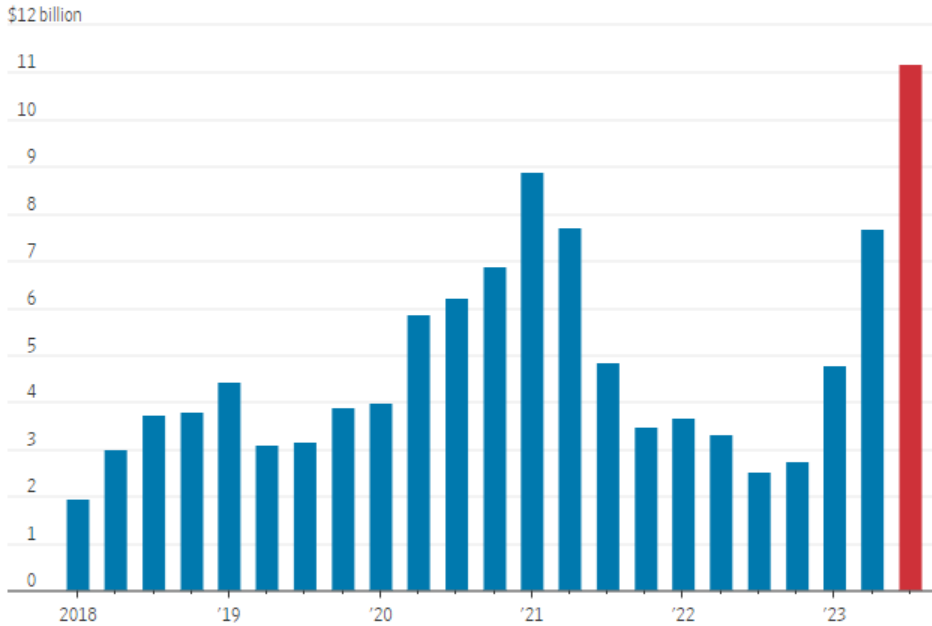
[인공지능]

WSJ: Amazon Beefs Up Bottom Line as AI Battle Shapes Up
아마존, 인공지능 경쟁속에서 수익성 개선

- 아마존의 올해 3분기 매출과 수익이 크게 증가했다. 아마존의 전형적인 소매점 비즈니스와 비교해 큰 수익을 제공한 것은 광고와 제 3자 셀러 서비스의 급격한 성장에 힘 입었다.
- 특히 아마존의 AWS 클라우드 컴퓨팅 비즈니스가 주목받고 있다. 성장 속도는 클라우드 분야의 최대 경쟁사인 마이크로 소프트 보다 빠르다.
- 그리고 한 예로 아마존은 AI 교육 및 워크로드용으로 설계된 프로세서를 포함해 클라우드 서비스 작동을 위한 자체 칩 라인을 늘려서 엔비디아 와도 경쟁하고 있다.

Retail Therapy

Amazon's operating income per quarter



Source: the company

WSJ 기사

Bloomberg: Citi Used Generative AI to Read 1,089 Pages of New Capital Rules

씨티은행, 1천89페이지 자본 규정 판독에 생성형 AI 사용

- 씨티은행은 월가가 AI 활용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그 은행의 4만명 코더 대 부분에게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인공지능이 직원의 업무 효율성을 더 높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씨티은행은 연방 규제 당국이 1천89페이지에 달하는 새로운 자본 규정을 발표했을 때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해 해당 서류들은 한단어 한단어 주의 깊게 검토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AI를 이용해 자본 관련 제안서도 작성했다는 것이다.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Exxon, Chevron Profits Disappoint on Weak Refining, Chemical Results 엑손과 셰브론, 정유 및 화학 사업 부문에서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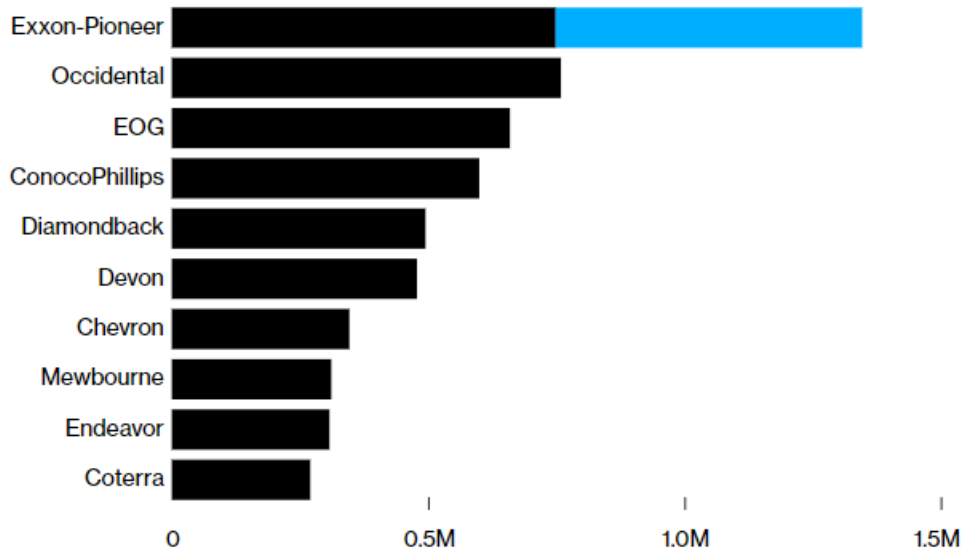
- 엑손 모빌과 셰브론이 정유 및 화학 사업에서 부진을 겪으면서, 부진한 실적 기록했다.
- 엑손은 한 주당 3분기 예상치보다 9센트 하락했고, 셰브론은 66센트 떨어졌다.

- 두 기업은 국제적으로 화학 제품에 대한 공급과잉이 있으며, 해외의 정유 생산량 감소가 원인이라고 언급했다.

Shale Dominance

Exxon-Pioneer deal would create the biggest producer in the Permian Basin

■ Operated Production (barrels of oil equivalent per day)



Source: S&P Global

Bloomberg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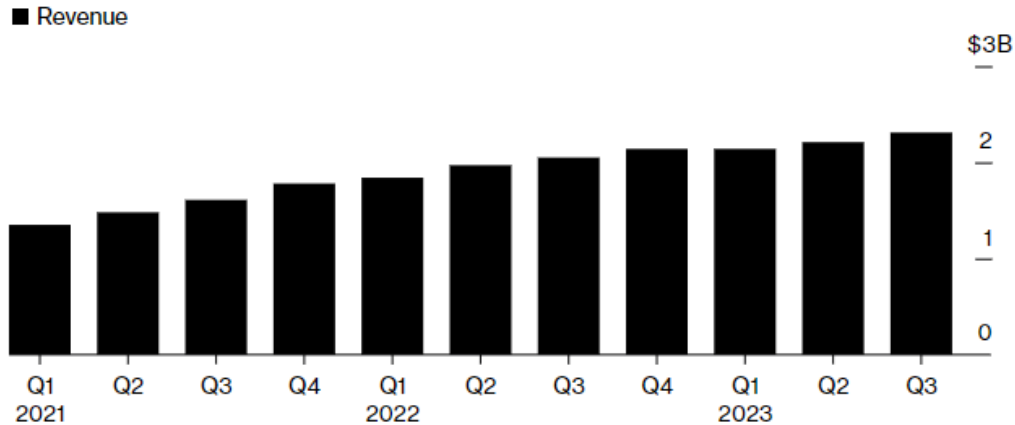
Amazon Strong Results Point Toward Boost for Cloud Business

아마존, 클라우드 사업부 성장 동력 얻고 있다

- 아마존의 CEO인 Andy Jassy가 투자자들에게 탄탄한 매출 및 이익 성장과 함께 클라우드 사업부가 수익 동력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인 아마존 웹서비스의 3분기 수입이 전망에 미치지 못했으나, Jassy는 사업이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 Jefferies의 분석가들은 아마존의 클라우드 매출이 12% 상승해 2백31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걱정하지 않아도 좋은 충분한 성장률이라고 밝혔다.
- Jassy는 아마존의 목표가 생성형 AI에서 주요한 역할을 맡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 기술이 수십년간 수백억 달러의 가치를 가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 아마존은 AI 스타트업 기업인 Anthropic과 파트너십을 발표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에 비해 뒤쳐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Amazon Cloud Unit Sales Begin to Pick Up

Amazon Web Services is a key growth driver for the company



Source: Company data compiled by Bloomberg

Bloomberg 기사

GM's Cruise Pauses All Driverless Operations After California Crackdown

GM의 크루즈, 미전역에서 자율주행 중단될 듯

- 캘리포니아의 규제 당국이 GM의 자율 주행 자동차인 크루즈가 안전하지 않으며, 이 기업의 자율주행 허가 취소를 발표한 이후 미전역에서 크루즈의 자율 주행이 중단되고 있다.
- 온라인 공고를 통해 어제 목요일 크루즈 기업 관계인은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중의 신뢰를 다시 쌓는 것”이라고 말했다.
- 크루즈 운행 중지는 GM의 자율주행 사업 부문에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이며,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 생산량을 축소하고, UAW가 수익성이 좋은 공장에 파업을 확대하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발생했다.
- 최근에는 전기차로 전환을 주저하는 구매자들이 늘어나고, 주 및 지역의 규제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크루즈로 인해 GM의 손실이 계속 커지면서, GM의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 사업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WSJ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미국 고용시장 과열 진정 기미...금리인상 랠리 한숨 돌리나

전문가 "연준이 환영할 데이터"...추가 지표 참고 후 금리 결정 전망

미국 고용시장 과열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상 랠리도 한숨 돌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준은 뛰는 물가를 잡기 위해 1년 넘게 기준 금리를 인상해왔는데 고용시장 냉각은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 완화를 시사하기 때문이다.

29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 구인·이직보고서(JOLTS)에 따르면 미국 기업의 지난달 구인 규모가 2년여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